

버스킹·서커스·매직쇼...광주, 축제의 물결로 뒤덮인다

수영대회 기간 프린지 페스티벌·세계청년축제 등 열려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버블 매직쇼·아시아 컬처마켓도
2019 비어 페스트 광주·아시아 푸드 페스티벌도 눈길

광주가 공연과 체험, 먹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들로 세계수영대회를 맞이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동안 광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누구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다.

5·18 민주광장에서선 '프린지 페스티벌', '광주 사운드 페스티벌' 등으로 관객을 맞는다. 여름 시즌 2번째 공연으로 펼쳐지는 '프린지 페스티벌' (13일)은 분수대 앞, 상무관 앞, 하늘마당 일대에서 마임, 버스킹, 서커스 등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선보

인다.

'2019 광주 사운드페스티벌' (14일)에선 YB, 닥펄스, 데이브레이크 등 유명 밴드와 소란, 더로즈, 정세운 등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개성 넘치는 공연을 펼친다.

'제5회 세계청년축제'도 19~21일 매일 오후 4시 '청년의 바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청년축제송 콘테스트', '5.18km 나이 트런', 'DJ 파티' 등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의 마임 전문가들이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구경하는 '프린지 아시아 마임캠프' 축제도 26~27일 오후 5

시 만나 볼 수 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마련한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13~21일)도 함께 개최된다. '9일간의 아트바캉스, 예술의 물결 속으로' (DIVE INTO ART)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축제에서는 클래식, 국악, 연극, 오페라, 재즈, 대중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으로 관객을 맞는다.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 '난타' (13일)부터 '만9900원의 행복-유리상자 콘서트' (20일), '서영은 콘서트' (21일) 등 대중가수 초청 무대, '김이군의 11시 클래식 산책-자유와 정열의 여인 카르멘' (16일), 빅맨 싱어즈와 배진아의 '팝페라! 트롯페라!' (19일)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다.

또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버블 매직쇼' (13~14일), 그룹 '재즈 나잇'의 재즈 공연 'Jazz Night' (13~15일, 19~21일)

등 야외극장 무대, 야외스크린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14일), '레미제라블' (17일) 등 영화를 즐기는 달빛극장도 함께 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김홍재의 레스피기: 물의 축제' (18일), 광주시립오페라단 '광주솔리스트앙상블' (19일) 등 7개 광주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무대도 마련되며, 중견·신진작가 110여명이 출품한 회화, 드로잉, 공예, 서예 등 작품 350여점을 살 수 있는 '한집 한 그림: 아트마켓' (12~31일), 한국 수석회 광주지역회원의 수석전시회 (12~21일)도 함께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컬처마켓' (19~20일) 축제를 연다. 시민 셀러가 제작한 문화상품, 먹거리, 공연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마켓'을 열고, '2019 ACM 야외음악회' (20일)를 열어 광주시립교향악단, 한

누리 무용단, 윈드앙상블 크로마 등 단체와 소프라노 캐슬린 김, 테너 김승직 등 음악가를 초청, 클래식·국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맥주와 함께하는 축제 '2019 비어 페스트 광주'도 눈길을 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 열린홀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마셔Brewer' (11~20일), '일맥상통' (8월 9~18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맥주를 중심으로 야시장,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을 접목한 행사로 기획됐으며, 각종 수제맥주와 세계 각국의 맥주, '플래티넘'의 '골드 에일'과 '화이트 에일', '화수브루어리'의 '유자페일에일'과 '스타우트' 등 독특한 맥주를 만나 볼 수 있다. 또 특수조명, 디제잉을 위한 음향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트로피컬 하우스 뮤직', 90년대 가요 인기곡 등으로 흥을 돋군다.

복고 콘셉트로 즐기는 축제 '별밤피크닉-광산뉴트로맥주파티'도 20일 오후 7시 30분 서구 쌍암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동구 서남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일대에서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문화·음식을 체험하는 축제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20일, 8월 3일, 17일), 상무금융시장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운천호수공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품암호수공원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대중가요, 악기연주, 무용 등 공연을 만나는 '도심속 문화예술축제'도 함께 펼쳐진다.

예술가와 함께 체험·공연을 즐기는 '빛나는 거리 예술로 궁둥' (13일, 20일, 27일), 예술가·상인이 함께 예술문화 프로그램, 아시아주를 운영하는 '대인예술시장' (7~8월 매주 토요일)도 만나 볼 수 있다.

/특별취재단=유연재 기자 yjyou@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중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넌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



'프린지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5·18 민주광장 분수대 앞에서 '플레이밍파이어' 팀이 선보이는 쇼 '버닝 콘서트' 공연.



지난해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제4회 세계청년축제' 중 'EDM POOL 파티 물꽃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모습.

개회식 문화행사 광주 청년 기업이 나서

한국광기술원 입주 5개 기업, 공연에 활용 LED 개발·제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에 광주 청년 기업들의 기술력이 사용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조직위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과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광기술원에 입주한 5개 청년 기업 중 하나인 (주)태준티제이 정순교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대회 개회식 기술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한국광기술원과 이들 5개 입주기업은 개회식에서 활용될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제작해 지원한다.

(주)페이스그래픽이 디자인을, (주)공

간기술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등 한국광기술원 신기술창업센터의 5개 청년 기업이 협력해 제품을 완성했다.

이번에 제작된 LED는 수영대회 개회식 문화공연 중 인간의 과욕으로 변한 죽음의 바다를 광주의 빛으로 정화해 고래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바다로 만드는 '빛의 분수' 공연에 사용할 예정이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한국광기술원과 광주의 청년 기업들이 직접 아이템을 개발해 세계수영대회 개회식에 활용하는 것은 광주의 기술력과 젊은이들의 열정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광주시, 관광안내센터 특별 운영

선수촌·남부대 주경기장

관광·맛집·홈스테이 등 안내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선수촌과 남부대 주경기장에 광주관광안내센터를 특별 운영한다.

선수촌에서는 웰컴센터와 광장 버스, 남부대학교 주경기장에서는 마켓스트리트 A구역에서 각각 운영하며 참가자 및 방문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한다.

선수촌 내 관광안내센터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관광안내센터는 12일부터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광주관광안내센터에서는 관광지, 맛집,

홈스테이, 공연, 교통수단 등 광주관광종합정보를 안내하며 광주시티투어 및 수영대회 특별 투어 상품도 판매한다.

광주시시티투어버스는 토·일요일 운행한다.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전통문화관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서창한옥마을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등에서는 전통음식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수영대회기간 매일 공연이 예정된 광주공연마루에서 전통국악공연 관람을 할 수 있다.

수영대회 특별투어(버스)는 수영대회 참가자 전용이다. 선수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 밤 9시에 되돌아온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원효사, 전통문화관, 대인시장 또는 남광주시장 등을 둘러본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수영대회, 해외 자매·우호도시도 함께

중 우한시·日 요코하마시 등
4개 도시 방문단 개막식 참석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4개 도시 14명의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단이 12일 광주를 방문한다고 10일 밝혔다.

방문단은 중국 우한시와 선양시,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일본 요코하마시의 체육분야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수영대회 개회식에 참석 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상공회의소, CGI센터 등 광주지역 경제·문화분야 대표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

의한다.

광주시는 13개국 22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우한·선양시는 2007년부터, 말레이시아 말라카주는 2010년부터, 일본 요코하마시는 2014년부터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지금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정영화 광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수영대회는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며 "해외 자매·우호도시 방문단을 통해 광주를 알리고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